

“지역경쟁력 향상에 최선 다해달라”

남원시 '시정소통의 날' 행사
최경식 시장 현안 토의
전북도민체전 성공 개최
국가예산확보 총력 대응 당부



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아울러 자치행정국 직무에 대해 언급하며 “남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가공, 콘텐츠화 하느냐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달라진다”며 “자연스레 인구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직무에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안전건설국 직무와 관련해서는 도시설계의 기초가 되는 도시재생, 구획정리 등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것과 특별히 빈집 관련

마스터 플랜을 세워 도시정주환경 개선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으며 ‘시장과 함께하는 읍면동 소통행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해주시냐에 따라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 지역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시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피력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최경식 시장이 최근 간부들에게 15년 만에 남원에서 열리는 ‘전북도민체전’ 준비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시정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최경식 시장은 이날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남원에서 열리는 제 59회 전북도민체전은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자 2만명~ 2만5000명의 손님들을 남원에 모시는 일이다”며 “그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을 통해 전북도·시민이 하나 되고 함께하는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또 전북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각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행사 개최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읍면동별 선수단 자매결연 등을 적극이행 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국정 기조와 도정기조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국가에

정읍시, 에스아이피산업과 공장 확장 투자협약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생산 시설

정읍시가 합성수지 전문 제조업체인 (주)에스아이피산업과 첨단과학산업단지 공장 확장을 위한 투자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에스아이피산업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896㎡(약 1179평) 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장 확장과 함께 생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 회사 운영에 따른 10여 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에스아이피산업은 1968년 창립한 국내 합성수지 파이프의 선구자인 신우산업(주)의 자회사로 향후 새만금개발 등에 따라 파이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증설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첨단과학산업단지 7847㎡(약 2373평)의 부지에 1060㎡(약 320평) 규모로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김홍기 에스아이피산업 대표는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린다”며 “에스아이피산업이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밑알이 되도록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증설 투자를 결정해준 에스아이피산업에 감사드린다”며 “정읍을 믿고 투자해 주신 만큼 정읍 대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산내면서 ‘댕구알 버섯’ 9년 연속 발견

세계적으로 희귀하다고 알려진 ‘댕구알 버섯’이 9년 연속 남원시 산내면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주지환 씨는 2014년 처음 사과밭에서 댕구알 버섯(사진)을 발견했다. 그 이후 매년 비슷한 자리에서 댕구알 버섯이 자란다고 설명했다. 주 씨에 따르면 이번엔 발견된 2개의 댕구알 버섯은 지름이 15~20cm 정도 되는 백색의 공모양이며 표면이 매끈하고 말랑한 촉감이다.

주 씨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 버섯이 해마다 사과밭에서 발견돼 놀랍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발견된 버섯은 따로 판매는 하지 않고 식용으로 소비하거나 담금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댕구알 버섯은 둥그런 겉모양 때문에 눈갈사탕이라는 뜻의 댕구알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보통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밭이나 풀밭, 잡목림 등에서 자란다. 기후나 환경조건이 급격히 바뀔 때 꽃을 피우고 하루밤 사이에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댕구알 버섯은 각종 염증 발생을 억제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개체수가 워낙 적어 구체적인 성분 및 효능에 관하여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9년째 같은 자리에 나타난 댕구알이 내년에도 10년 연속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선운산 경관폭포 ‘무장애테크길’ 연장

환경정비·소공원조성도 추진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의 명물로 떠오른 ‘도솔재 경관폭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무장애테크길의 구간을 연장한다.

고창군 선운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총사업비 6억3000만원을 들여 3개월간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주변 무장애테크길 연장을 비롯해 환경정비와 소공원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선운산 무장애테크길은 유아차는 물론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도를 8도로 맞춘 완만한 테크길로 계단과 턱이 없는 대신 경사도를 유지하다 보니 산책로는 지그재그를 띠게 된다.

사업에 따라 기존 선운산 도솔재쉼터까지만 이어졌던 테크길은 경관폭포 바로 앞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내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경관폭포와 연계해 도솔재 주변에 3km길이의 황도포장길과 테크길, 수변테크길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선운산도립공원 내 ‘도솔재 경관폭포’.

‘호남제일정’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 연꽃 만개



이달 중순 절정... 탐방객들 유혹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 289호·사진) 연못의 연꽃이 개화했다.

지난달 하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연꽃은 서서히 수면 위를 가득 채우며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녹색 잎과 연분홍 꽃봉오리들의 어우러짐이 눈을 즐겁게 하고 바람 끝에 묻어나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질인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유명한 피향정 연꽃 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관

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피향정 연꽃은 이달 중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못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한옥 정자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다. 피향정은 예로부터 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란 의미로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일컬어진다.

원래 정자 앞뒤로 상연지와 하연지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지만 상연지는 1900년대 초 메워지고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청년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주 1~2회 실전 창업을 위한 과제 중심의 전문 코칭과 전담 멘토가 배정되는 1:1 멘토링,

로컬 창업가의 외부 특강 등을 진행한다.

시는 정읍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1년 이내의 초기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프랜차이즈 업종과 단란·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해 청년지원센터(1544-8834)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